

『이슈 _ 2023.11월』 “세계도시들의 문화정책... 흐름과 키워드” (1/2)

작성자 : 김해보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sea@sfac.or.kr)

지난 2023.10.25.~10.27, 3일간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서 제 12회 WCCF(세계도시문화포럼) 서밋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미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었고 40개 도시가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올해 주제는 “Culture, Courage & Leadership for a New World (새로운 세계를 위한 문화, 그리고 용기와 리더십)”였습니다. 기후위기, AI 기술을 비롯하여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문화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정책 이슈페이퍼는 11~12월 2회에 걸쳐 WCCF 상파울루 서밋에서 확인되는 세계 문화정책의 “흐름”과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WCCF는 시드니 참가자의 말처럼, 좋은 정책 사례를 값싸고 손쉽게 쇼핑하듯 얻어갈 수 있는 소위 <정책 부띠끄> 같은, 세계도시들의 정책 교류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책 포럼에서 논의되는 말들의 잔치와 글로벌 흐름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가 주는 영감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낯선 사회적 맥락 위에서 같은 현상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 자신이 속한 사회시스템 안에서 그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서밋 행사 장소들은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 유럽문화의 흔적, 자연과 어우러진 근대 브라질 건축의 특징, 강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통, 저항의 목소리를 담은 브라질 힙합 문화 등, 상파울루 시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당면 이슈를 잘 보여주는 장소들이었습니다.

특히 첫날 세션이 진행된 SESC Pompéia(세스키 폼페이아)에서는 사회·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공공 문화서비스 시스템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46년 “Carta da Paz Social(사회평화헌장)”에 근거한 SESC의 탄생에는 강한 노동조합과 좌파 정치성향 등 브라질의 독특한 사회적 맥락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문화는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공유해야 할 “사회적 자본”이지만 동시에 진화하는 문화자본주의의 수익을 만들어 내는 “문화자원”이 된 지금, SESC Pompéia의 가운데 회랑 벽면에 설치된 “Culture = Capital”이라는 조형물의 의미는 다양하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SESC와 같은 문화서비스 시스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무릅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것의 운영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경제적 조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문화자본주의 안에서 지속가능한 보편적 문화서비스 시스템을 제시하여 시민들로부터 계속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려면, 정치적 결단과 함께 새로운 문화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달라지는 문화의 “수익”의 의미는 다음 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울창한 열대 수목과 브라질 근대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이비라푸에라 공원(Ibirapuera Park) 안에서 열리고 있는 제 35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의 주제는 “불가능한 안무(choreographies of the impossible)”였습니다. 브라질리아를 설계한 건축가 오스카르 네이미에르의 철학이 반영된 전시관 건물이 이번 비엔날레의 철학에 맞춰 처음으로 중앙 홀에 가벽을 설치해서 “가로막힘”을 구현했습니다. 인간과 비인간, 심지어 가상과 현실이 뒤섞이는 온갖 혼종의 시대에 살면서, 서로 낯설고 이질적인 것들이 만드는 새로운 움직임이 발생하려면, 멀리 떨어져 인터넷으로 홍수처럼 넘치는 정보로 “본다고 느끼는 것” 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기를 뚫고 나의 경계를 넘어와 다양한 존재 앞에 서서 “당신을 봅니다(I see you)”며 그를 직면하는 소통을 통해서만, “불가능한 안무”의 새로운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문화정책은 이렇게 예술에서 영감을 얻어야 지속가능할 것입니다.

『이슈 _ 2023.11월』

“세계도시들의 문화정책... 흐름과 키워드” (1/2)

<목 차>

1/2 : 2023.11.15. 발간

1. WCCF ... 글로벌 문화정책 플랫폼

- (1) 세계.도시.문화.포럼
- (2) 문화, 그리고 용기와 리더십
- (3) 문화정책 아이디어 쇼핑 부띠끄

2. 상파울루 ... 로컬리티에서 얻는 영감

- (1) 문화=자본
- (2) 숲과 건축
- (3) 불가능한 안무 (choreographies of the impossible)
- (4) 정육점에서 춤을

2/2 : 2023.12.05. 발간 예정

3. 세계도시 문화정책의 흐름

- (1) WCCF 세션 주제들에서 확인되는 문화정책 어젠다들
- (2) 현장 스케치 - 종합 세션 “분쟁현장에서의 문화” (Culture in Conflict)
- (3) 현장 스케치 - 챌린지 세션 “예술, 건강, 웰빙” (Arts, health, and wellbeing)

4. 새로 곱씹어봐야 할 키워드들

- (1) 정체성(identity) ... 무기가 되는
- (2) 다양성(diversity) ... 다난하기도 한
- (3) 수익(profit) ... 탈화폐화(De-Monetized) 되는
- (4) 인공적인(artificial) ... 또는 인간적인(human)



『이슈 _ 2023.11월』

“세계도시들의 문화정책... 흐름과 키워드” (1/2)

1.

WCCF

... 글로벌 문화정책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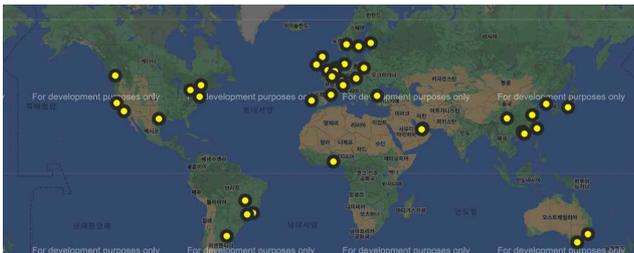
(1) 세계.도시.문화.포럼

□ WCCF (World Cities Culture Forum : WCCF) 개요

-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lture Forum : WCCF)은 문화정책 정보 공유와 교류를 목적으로 런던시장이 주도하여 2012년에 공식 발족한, 세계 도시들 간의 정책 네트워크임. (홈페이지 : <http://www.worldcitiescultureforum.com/>)
- 회원 도시는 주로 국가별 수도 도시 수준으로 세계경제에서 뚜렷한 위상을 가지며, 국제적인 문화정책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도시들로 초청됨.
- 2012년 9개 회원도시로 출발하여 2023년 현재는 총 44개 회원으로 확대되었음.
- 한국에서는 서울시가 2013년부터 회원으로 활동해오고 있음. 서울시는 2017년 11월에 “창조도시를 넘어서 : 문화시민도시에서의 문화와 민주주의” (Beyond the Creative City: new civic agendas for citizens and by citizens)를 주제로 총회를 개최한 바 있음.
- WCCF는 각국을 순회하는 정기총회(Summit) 개최, <세계도시 문화리포트 (WCCR: World Cities Culture Report)> 문화통계 발간, 사회변화 프로젝트와 기후위기 대응 매뉴얼 등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도시들 간의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는 문화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
- 2016년부터는 블럼버그재단의 기부금으로 도시 간 문화정책전문가 교류 및 공동연구 프로그램(Leadership Exchange Programme)도 운영 중임. 그 결과로 2021년에 『컬처 카운츠 : 세계도시들의 증거기반 문화정책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Culture Counts : new approaches to evidence-based cultural policy making in World Cities)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음
- 이처럼 문화정책의 정보교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문화정책의 흐름을 만들어 가기도 함.

MEMBERS OF THE WORLD CITIES CULTURE FORUM

Abu Dhabi | Amsterdam | Austin | Barcelona | Bengaluru | Brasilia | Brussels | Buenos Aires |
Chengdu | Chicago | Dubai | Dublin | Edinburgh | Guangzhou | Hamburg | Helsinki | Hong Kong |
Istanbul | Kyiv | Lagos | Lisbon | London | Los Angeles | Melbourne | Milan | Montréal | Nanjing |
New York | Oslo | Paris | Rio de Janeiro | San Francisco | São Paulo | Seoul | Shenzhen | Stockholm
Sydney | Taipei | Tokyo | Toronto | Vancouver | Vienna | Warsaw | Zurich |



WCCF 회원도시 현황
(출처 : WCCF 홈페이지)

□ 2023 상파울루 서밋

- 2023.10.25.(수)~10.27(금) (3일간)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서 제 12회 WCCF 서밋이 개최되었음.
- 남미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행사로서, 서밋 주제는 “Culture, Courage & Leadership for a New World (새로운 세계를 위한 문화, 그리고 용기와 리더십)”이었음.¹⁾
- 기존의 문화정책 이슈 외에 기후위기, AI 기술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문화정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초청강연, 종합세션, 분임토의, 현장투어 등 다양한 형태로 3일간 폭 넓게 다루었음.
- 이번 서밋에는 3개 읍저버 도시(켈른, 나이로비, 요하네스버그)를 포함하여 총 40개 도시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였음. 회원도시 총 44개 도시 중에서는 37개 도시가 참가했고, 이스탄불 등 7개 도시가 불참하였음.
- 유럽지역 도시가 14개(읍저버 포함)로 가장 많았고, 특히 중국에서는 청두, 난징, 선전, 광저우 등 4개 도시가 참가했음.



WCCF 2023 상파울루 서밋에 참여한 총 40개 도시 참가자들
(출처 : 상파울루 시청)

서밋 세션 구성 (초청강연 및 현장투어 별도)

- **Opening Plenary** : Culture, Courage & Leadership for a New World
- **Day 1 Panel Sessions** : “Strengthening the Golden Thread – Cultural across all urban policies”
- **Day 2 Plenary Sessions** : Culture in Conflict
- **Presentation**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ve industries
- **Day 2 Panel Sessions** : “Power sharing”
- **Day 2 Challenge Sessions** : Accessibility 부터 Next generation까지, 8개 분야 문화정책 이슈들
- **Day 3 Challenge sessions** : AI부터 예술인기본소득까지, 총 9개의 새롭게 부상하는 정책 이슈들

1) 행사현장 스케치영상 <https://youtu.be/s9V-tnjJebc?feature=shared>

<WCCF 회원도시 현황 및 2023년 서밋 참가현황>

연번	회원 도시	국가	참가여부	지역별(숫자)
1	상파울루	브라질	참가	남미(4)
2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참가	
3	브라질리아	브라질	참가	
4	브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참가	
5	뉴욕	미국	참가	북미(8)
6	로스앤젤레스	미국	참가	
7	샌프란시스코	미국	참가	
8	시카고	미국	참가	
9	오스틴	미국	참가	
10	몬트리올	캐나다	참가	
11	벤쿠버	캐나다	참가	
12	토론토	캐나다	참가	
13	타이페이	대만	참가	아시아(9)
14	벵갈루루	인도	참가	
15	도쿄	일본	참가	
16	광저우	중국	참가	
17	난징	중국	참가	
18	선전	중국	참가	
19	청두	중국	참가	
20	서울	한국	참가	
21	홍콩	홍콩	참가	
22	멜버른	호주	참가	오세아니아(2)
23	시드니	호주	참가	
24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참가	유럽(13)
25	함부르크	독일	참가	
26	브뤼셀	벨기에	참가	
27	스톡홀름	스웨덴	참가	
28	바르셀로나	스페인	참가	
29	더블린	아일랜드	참가	
30	런던	영국	참가	
31	키이우	우크라이나	참가	
32	밀라노	이탈리아	참가	
33	리스본	포르투갈	참가	
34	바르샤바	폴란드	참가	
35	파리	프랑스	참가	
36	헬싱키	핀란드	참가	
37	두바이	UAE	참가	중동(1)
38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공화국	참가-옵저버	아프리카(2)
39	나이로비	케냐	참가-옵저버	
40	켈른	독일	참가-옵저버	유럽(1)
1	라고스	나이지리아	불참	아프리카(1)
2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불참	유럽(5)
3	오슬로	노르웨이	불참	
4	취리히	스위스	불참	
5	비엔나	오스트리아	불참	
6	이스탄불	튀르키예	불참	
7	아부다비	UAE	불참	중동(1)

(2) 문화, 그리고 용기와 리더십 (Culture, Courage & Leadership)

□ 행사 주제에서 파악되는 세계 문화정책의 당면 과제들

- 올해 서밋 주제인 “Culture, Courage & Leadership for a New World (새로운 세계를 위한 문화, 그리고 용기와 리더십)”은 기후위기, AI 기술을 비롯하여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문화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음.

올해 서밋 주제의 의미를 설명하는 저스틴 사이몬스 의장의 개회사 중

“...이제 뉴노멀이 아닌 뉴월드(New-world)에 대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문화의 황금실(golden thread of culture)>이라는 훌륭한 메타포만으로는 부족하고 데이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접근이 너무 실용주의적라고 비판받을지 몰라도 “용기”의 어원은 불어로 “heart”이다...“실패도 내놓고 얘기”(Be honest about your mistake)하는 용기를 내자”

- 각 세션들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현재 전 세계 도시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화정책 과제를 짐작할 수 있음.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들을 마지막날 “Future of ...”를 주제로 한 “Day 3 Challenge sessions”에서 9개 분임토의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WCCF 2023 서밋 세션별 주제에서 확인되는 현재 문화정책 이슈 키워드들>

세션 구성 및 주제	키워드
○ Opening Plenary : Culture, Courage & Leadership for a New World	변화, 리더십
○ Day 1 Panel Sessions : “Strengthening the Golden Thread – Cultural across all urban policies”	
1) Affordable workspace: How to replicate the Community Arts Stabilization Trust and the Creative Land Trust	창작공간
2) Beyond the centre: Moving money and space to local neighbourhoods	문화접근성
3) Creative industries: How can cities work with commercial creativity?	영리-비영리
4) Major events: Realising culture's contribution	메가이벤트
5) Urban planning: Is this the new super-power for culture?	영역간 협업
○ Day 2 Panel Sessions : “Power sharing”	
1) Changing dynamics: How can citizens have their say on cultural policy?	거버넌스
2) Race and representation: Our cities are diverse, how can our governance catch up?	다양성
3) The gender gap: The glass ceiling still exists - what do we need to do differently?	성차별
○ Day 2 Challenge Sessions : 8개의 기존의 정책 이슈들	
1) Accessibility in the arts	장애예술
2) Arts, health and wellbeing	건강과 문화
3) Co-creation and civic leadership	민-관 협력
4) Indigenous voice	원주민문화
5) LGBTQ+ communities	성소수자
6) Museums, ethics and repatriation	문화유산
7) Representation in the public realm	포용도시
8) The next generation	미래세대
○ Day 3 Challenge sessions : 9개 새롭게 부상하는 정책 이슈들	
1) The Future of African Leadership: Imagining an Africa Fellowship	아프리카
2) The Future of AI: Are cities sleepwalking into crisis?	AI
3) The Future of Creative Hubs	창조지구
4) The Future of Cultural Data: Power by numbers	문화통계
5) The Future of Freelancers: A universal basic income for creatives?	기본소득
6) The Future of Funding: What new models are emerging?	재원조성
7) The Future of Justice: Can culture prevent crime?	사회적 역할
8) The Future of Sustainable Tourism: Unlocking culture's role in the climate emergency	기후위기
9) The Future of the Night Time Economy: From 'what is' to 'what next'?	야간문화

□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문화정책의 리더십을 확인한 상파울루 선언

- 올해 폐막식에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문화분야 목표를 추가하기 위한 "상파울루 선언문"(A Goal for Culture : São Paulo Manifesto)이 채택되었음.
- 이는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문화적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노력의 한 사례임
- 선언문 내용은 문화가 지속가능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목표 영역이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고 문화정책의 인간 행복 증진과 사회 번영에 기여하는 역할을 보다 강력히 천명하는 것이었음.
- 총 8개 언어로 작성되었고, 회원 도시의 시장/부시장들이 서명하여 발표하였음. (WCCF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²⁾



폐막식에서 “지속가능발전(SDGs)을 위한 문화분야의 목표 상파울루 선언문(A Goal for Culture : São Paulo Manifesto)”을 발표하는 저스틴 사이몬스 WCCF 의장 (출처 : 상파울루시청)



영어, 포르투갈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아랍어로 작성된 상파울루 선언문(A Goal for Culture : São Paulo Manifesto) (출처 : WCCF 홈페이지)

2) http://www.worldcitiescultureforum.com/assets/others/WCCF_SAO_PAULO_MANIFESTO_TRANSLATIONS_DIGITAL.pdf

(3) 문화정책 아이디어 쇼핑 부딕크

□ Be honest about your mistake

- WCCF 서밋은 외부 연사 초청 강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각 도시의 문화정책 담당자들이 본인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사례발표와 허심탄회한 토론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임.
- 각 도시의 문화분야 최고 정책 의사결정자이면서 매우 실무적인 전문성을 겸비한 부시장, 국장급 관료들이 참여하여 매우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점이 인상적임.
- “Be honest about your mistake”라고 말한 저스틴 의장의 개회사처럼, 단순히 자기 도시의 정책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패 사례까지 내놓고 서로 배우는 자리임.
- 문화전문 관료가 계속 같은 자리를 지키는 서구의 도시들은 주로 시청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반면, 아시아 도시들은 주로 순환근무하는 시청의 행정관료들과 산하기관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대비를 이룸.
- 영어를 공용어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한계도 있지만, 이런 행정적 배경 차이 때문에 깊이 있는 정책 토론과 정보 공유를 기대하는 측과 자기 도시의 정책 성과를 자랑하는데만 집중하는 측의 욕구가 서로 상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실무적 감각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의하는 각 도시의 참가자들
(출처 : 상파울루시청)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션 참가자들
(출처 : 필자)

□ “문화정책 아이디어를 한 곳에서 훑치거나 쇼핑할 수 있어” ... 아태지역 세션에서 확인하는 WCCF의 장점

- 마지막 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태 지역별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세션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유럽과 북미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탈피하여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최근에 두드러짐
- 내년 서밋 개최지로 UAE의 두바이가 선정 된 배경에도 그런 지역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아시아 지역은 특히 담당자들의 잦은 변동, 다양한 언어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이번 서밋에서 별도 지역 세션을 진행하기도 하였음. 타이페이, 도쿄, 홍콩, 시드니, 멜버른, 서울 참가단이 “WCCF에서 기대하는 것? 또는 좋은 점?”을 얘기하며 아-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했음.
- 시드니 참가자는 “좋은 정책 사례를 값싸고 손쉽게 쇼핑하듯 얻어갈 수 있는 소위 <정책 부딕크> 같다”고 했고, 홍콩 참가자는 “(좋은 의미로) 아이디어 훑치는 곳”이라고 표현했음.
- 인터넷으로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것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맥락적 차이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이런 서밋이 의미가 큼. WCCF 사무국장인 Laia Gasch는 “런던 사무국은 작은 규모일뿐이고, 지역별 사무소가 필요하다”며 아태지역 회원도시들 간의 보다 활발한 교류를 기대했음.

2.

상파울루

... 로컬리티에서 얻는 영감

(1) 문화 = 자본

□ 상파울루의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던 행사 장소들

- 세계적인 문화정책 토론의 장소는 글로벌 어젠다의 보편성 위에 로컬리티의 영감을 제공하며 새로운 혼종의 결과를 낳게하는 중요한 요소임.
- 낯선 사회적 맥락 위에서 같은 현상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 자신이 속한 사회시스템 안에서 그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게 해줌
- 이번 서밋 행사 장소들은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 유럽문화의 흔적을 담고 있는 Theatro Municipal São Paulo(상파울루 시립극장), 근대 브라질 건축의 특징과 강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통을 보여주는 SESC Pompéia (세스키 폼페이아)와 Centro Cultural São Paulo (상파울루 문화센터), 힙합 문화의 모든 면을 보여주는 Tendal del Lapa 등, 상파울루 시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당면 이슈를 잘 보여주는 장소들이었음.
- 새로운 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정보를 무턱대고 수입하여 벤치마킹하거나 곡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브라질은 2022년 10월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내보내고 금속노동자 출신의 좌파 성향 룰라 대통령을 당선시킨 바 있음. 룰라는 2003~2010년에 대통령으로 재직했다가 2018년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되었고, 이후 선고 무효 판결을 받고 극적으로 회생하였음³⁾.
-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추앙되던 룰라의 정치적 몰락과, 한때 G7을 견제하던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주자의 경제적 몰락을 연결지어 쉽게 "노조 포퓰리즘의 몰락"⁴⁾으로 지적되었음.
- 하지만 현상을 피상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밑에 깔린 역사와 정치-지리-경제-문화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브라질 좌파와 우파 정치가들의 부침과 그들의 정치적 신념을 반영한 사회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데는, 식민지 시대의 유산, 다양한 인종들과 정치적 지형, 열대우림으로 갈라진 도시들, 시민들의 낙천적인 성격이 반영된 문화적 특징 등, 복합적인 배경정보가 필요함⁵⁾

□ SESC Pompéia (세스키 폼페이아)

- 서밋 1일차(2023.10.25.(수) 오후 세션이 진행된 SESC Pompéia는 원래 드럼 생산 공장이었던 것을 1982년 건축가 리나 보 바르디(Lina Bo Bardi)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현재와 같이 리모델링 되었음.
- 거리 위에 떠 있는 모습의 상파울루 미술관을 설계하기도 한 건축가 리나 보 바르디는 20세기

3) 브라질 대선: 돌아온 룰라와 패배한 보우소나루 (바네사 부슈숀워드, BBC News, 2022.10.31.)

4) `노조 포퓰리즘` 13년...브라질의 몰락 (장원주, 매일경제, 2017.12.10.)

5) 브라질 권력구조와 정치과정의 특징 (김현장.정진영,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 2권, 서울대학교, 1991) 참조

중반 브라질 건축계의 대표적인 여성 건축가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브라질로 귀화해 문화 활동과 교육에 헌신했고, '가난한 건축'의 주창자로도 유명함. 장식적 유럽풍이 대세를 이루던 당시 남미 건축계를 향해 문화적 속물주의를 배격하고 재료와 구조 그 자체의 건축을 강조했다. (김봉렬, 2023)⁶⁾



에전 드림 공장을
복합문화시설로 개조한
SESC Pompéia 전경
(출처 : 상파울루시청)

- SESC는 교육, 문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비영리 기관임(<https://www.sescsp.org.br/>)
- 1946년 설립 후 약 70년 동안 SESC는 문화서비스 및 사회변혁에서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해왔고, 지금은 브라질의 가장 선도적인 예술 지원 기관이기도 함.
- 상파울루의 SESC Pompéia는 문화, 스포츠, 음식, 의료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시설로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었고, 이와 같은 시설이 브라질 전역 43개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SESC의 탄생에는 강한 노동조합과 좌파 정치성향 등 브라질의 독특한 사회적 맥락이 반영되어 있음.
- 1946년 전국에서 모인 183명의 대표단과 노동조합 및 무역협회 지도자들 간의 논의 결과로 노동자들의 복지, 건강, 레저 서비스 제공에 대해 합의한 "Carta da Paz Social(사회평화헌장)"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
- "Carta da Paz Social(사회평화헌장)의 내용 중 "(2)O capital não deve ser considerado apenas instrumento produtor de lucro, mas, principalmente, meio de xpansão econômica e bem-estar coletivo. (자본은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으로만 간주되지서는 안되고 무엇보다도 경제 확장과 공동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구절이 이 조직의 탄생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해줌.⁷⁾
- 이번 서밋 개막식에서도 상파울루 문화부시장 Aline Torres은 상파울루가 다양성의 도시, 바로 지난 주에 유네스코 음악도시로 지정된 도시, 자동차 산업보다 문화영역의 경제적 기여가 더 큰 도시라는 자랑과 함께, 문화의 공공적 가치를 인정하며 아동.청소년.문화교육을 중시하는 도시라고 소개했음.
- 문화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지출과 민관협력 시스템의 태동은 그 사회의 정치적 맥락 위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그것의 지속가능성은 현재 경제적 상황 위에서 적절히 분석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음.
- SESC Pompéia의 가운데 회랑 벽면에 설치된 "Culture = Capital"이라는 조형물이 위의 설립 취지를 잘 말해주지만, 문화자본주의 시대에 "문화는 자본이다"는 의미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들여질 것임. 문화는 시민들이 나은 삶을 위해 공유해야 할 "사회적 자본"이기도 하면서 기업들이 문화자본주의의 수익을 만들어 내는 "문화자원"이 되었기 때문임.

6) 거리 위에 떠 있는 상파울루 미술관 (김봉렬, 중앙일보, 2023.5.29.)

7) 원문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escsp.org.br/wp-content/uploads/2023/01/Carta-da-Paz-Social.pdf>



SESC Pompéia 벽에
설치된 “문화=자본”
조형물
(출처 : 필자)

- SESC가 표방하는 바와 같이 비영리 방식의 모든 시민들을 위한 문화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무릅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것의 운영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경제적 조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는 것임.
- 하지만 사람이 하는 정치적 결단은 경제적 조건을 만들어 내는 사회의 기저 시스템보다 쉽게 바뀌는 경향이 있음.
- 문화자본주의 안에서 지속가능한 보편적 문화서비스 시스템을 제시하여 시민들로부터 계속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려면, 정치적 결단과 함께 새로운 문화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음.
- 지금 기업들은 엄연히 “영리적 수익”의 원천이 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트래픽과 회원 충성도 등의 형태로 “탈화폐화된 수익”을 축적하면서도 “비영리”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음. 반면 공공주체들은 “증거기반 정책”을 지향한다며 눈에 보이는 효과만 좇느라 보이지 않고 “숫자”로 적히지 못하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내팽겨치고 있는 실정임. 문화가 자원이고 신뢰가 돈이 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상을 이해하는 경제학과 정책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⁸⁾

(2) 숲과 건축

□ 천지불인(天地不仁) 자연 위에 공존하는 인간의 건축

- 브라질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면적이 넓은 국가이며, 남아메리카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 국토의 대부분은 열대우림이 차지하고 있어 대도시들은 해안에 몰려있고, 열대우림을 가로지르는 철도망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지역간 연결, 통합, 발전에 지장을 받는다고 함.⁹⁾
-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지역 개발에 대한 비판, 그에 따른 원주민들의 시위¹⁰⁾가 최근까지 브라질의 사회적 이슈임.
- 개막식에서 소개된 상파울루시 홍보 영상의 키워드도 “문화적 다양성”과 “그린(green)”이었음.

8) “문화의 탈화폐화 지대(DMZ : De-Monetization Zone)” 안에서의 “감정경제학” ; “문화경제(cultural economy)”를 넘어 “문화경제제민(Cultural 經世濟民)”으로 나아가기” (김해보, 2023)
<https://brunch.co.kr/@seaokof/62> 참조

9) 브라질 철도 인프라 극도로 열악... “31%는 사용 어려울 정도” (김재순, 연합뉴스, 2018.6.8.)
브라질 '13조원 규모' 철도 프로젝트 재개... 신성장 가속화 프로그램 출범(길소연, The Guru, 2023.8.9.)

10) “대대로 살아온 땅, 권리 보장하라” 브라질 원주민 격렬 시위 (박병수, 한겨레신문, 2023.5.31.)

아마존의 질푸른 열대우림과 원주민의 강렬한 원색이 대비를 이루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만들어 내는 또다른 다양성의 면모를 보여줌.

- 상파울루 서밋의 행사 장소로 선정된 건물들 중에 자연 환경과 어울리게 옆으로 넓게 퍼진 형태와 지붕에 정원을 이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건물들이 많았는데, 그에 반영된 건축가들의 철학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길을 제시하는 듯 했음.
- 이비라푸에라 공원(Ibirapuera Park)에서 브라질을 대표하는 건축가의 작품과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안고 있는 듯이 보이는 거목을 양 옆에 두고 나눈 대화에서 문명권 마다 자연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한다는 서양인의 관점,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인간 따위의 생존에 관심도 없다(天地不仁)는 동양인의 관점, 그리고 이상 가뭄 현상을 두고 아마존의 영혼이 화가 나서 이제 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남아메리카 원주민의 관점 모두 사실은 인간을 향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음.
- 종족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인간은 지구 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서로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거대한 숲 안에 넓게 퍼진 건축물은 이미 스스로 그러하다(自然)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음.



이비라푸에라 공원의 울창한 수목들
(출처 : 필자)



여성 원주민공연단의 개막 축하공연
(출처 : 상파울루시청)

□ Ibirapuera Park (이비라푸에라 공원 : Parque do Ibirapuera)

- 서밋 3일차(2023.10.27.(목)) 폐막식 등이 진행된 이비라푸에라 공원은, 상파울루시 400주년을 기념하여 1954년 8월 21일에 개장하였음.
- 이곳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 공원 중 하나이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 상파울루 비엔날레, 상파울루 패션위크 등이 개최되는 중요한 문화 공간이라고 함.
- 공원은 브라질을 대표하는 건축가 오스카르 네이미에르(Oscar Ribeiro de Almeida Niemeyer Soares Filho)와 농학자 Otavio Augusto de Teixeira Mondes의 합작으로 만들어졌는데, 울창한 수목과 독특한 건축물을 자랑함.
- 폐막식 행사장이었던 Ibirapuera Auditorium은 오스카르 니에메에르에 의해 1950년에 설계되었으나 “지속가능” 건축 모델을 적용하여 2005년에야 완공되었음.



오스카르 니에메에르가 설계한 이비라푸에라 공원 (Parque do Ibirapuera)의 Ibirapuera Auditorium (출처 : 필자)

- 브라질 공산당의 당수를 역임하기도 한 오스카르 네이미에르는 브라질 모더니즘 건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됨. 그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를 설계했으며, 1988년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키 상을 수상하였음. 그가 설계한 브라질 상프란시스코 교회, 레바논 트리폴리의 라시드 카라미 국제 박람회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음.
- 오스카르 니에메에르가 설계한 Ibirapuera Auditorium은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진 추상적인 형태가 매력적이고, 같은 공원 안에 상파울루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지어진 Ciccillo Matarazzo Pavilion은 넓게 퍼진 형태로 브라질의 자연과 잘 어우러져 그의 건축 철학을 대변함.

오스카르 니에메에르의 인터뷰 중

“나는 사람의 손에서 태어난, 직각이나 직선, 단단함이나 유연하지 않은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자유롭게 흐르는 감각적인 곡선에 이끌린다. 내 조국의 산맥에서, 구불구불한 강에서, 대양의 파도에서, 사랑받는 여자의 몸에서 찾을 수 있는 곡선들 말이다. 온 우주, 아인슈타인의 휘어진 우주는, 곡선으로 만들어졌다.” (출처 : 위키피디아)

□ **Centro Cultural São Paulo (상파울루 문화센터)**

- 서밋 2일차(2023.10.28.(수)) 행사가 진행된 Centro Cultural São Paulo (상파울루 문화센터)는 상파울루 문화담당 부서가 직접 운영하는 복합문화시설임.
- 초기에는 도서관으로 설계되었다가 영화관, 극장, 도서관이 하나의 거대한 지붕 아래 함께 놓여 있는 독특한 구조의 문화시설이 되었음.
- 현재는 이외에도 도시 아카이브 자료관, 미술전시, 공연연습공간,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
- 철도 역사 플랫폼처럼 생긴 매우 독특하고 넓은 건축구조, 지붕을 덮고 있는 정원과 식생만으로도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였음.



철도역사와 같이 독특한 구조로 지어진 Centro Cultural São Paulo (상파울루 문화센터) 내부 (출처 : 필자)



도서관, 전시관, 공연장을 한 지붕 아래에 품고 있는 Centro Cultural São Paulo (출처 : 필자)

(3) 불가능한 안무 (choreographies of the impossible)

□ **유럽 식민지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도시**

- 상파울루 문화부시장 Aline Torres는 개회 인사를 통해 상파울루가 인구 약 1200만명이 사는 남반구 최대 도시, 100개 이상의 언어와 민족이 함께 사는 다양성의 도시라고 소개했음.
- 상파울루 시내에서 고층 건물 전체에 그래피티가 그려진 모습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라는 낯선 느낌을 주고, 다양한 문화의 결정체인 듯 다채로운 음식은 “이런 맛도 있네!”라는 즐거움을 주었음.
-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 유럽문화의 흔적, 흑인과 원주민들의 강렬한 문화적 목소리, 인간들 사이의 미묘한 관계에는 관심도 없을 대자연이 만나서 만들어 내는 “혼종성”이 상파울루가 주는 느낌이었음.

□ **제 35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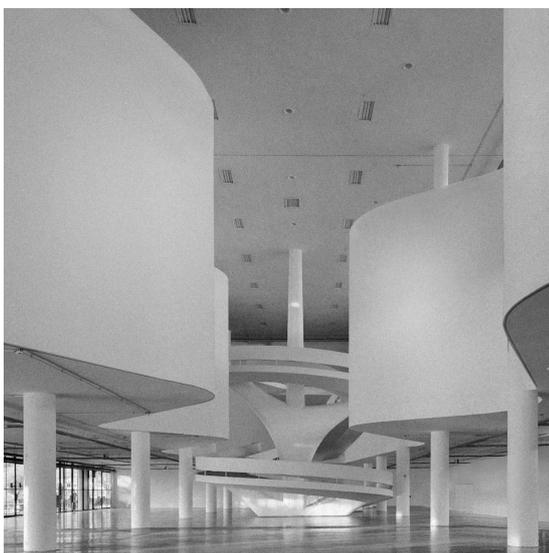
- 마침 Ibirapuera Park 안에 위치한 Ciccillo Matarazzo Pavilion에서 제 35회 상파울루 비엔날레가 진행되고 있어서 폐막 후 투어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음. (<https://35.bienal.org.br/en/>)
- 70년만에 처음으로 도입된 콜렉티브 큐레이터 그룹에 의해 선정된 올해의 주제는 “choreographies of the impossible : 불가능한 안무”임. 4인 콜렉티브 큐레이터들은 미술큐레이터 외에 작가 겸 연구자, 인류학자, 고학자, 미술사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로 구성되었음.

- 그들은 무생물과 생물, 인간과 비인간, 동양과 서양 간의 혼종과 섞임을 보여주는 121명의 참가자들의 작업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원주민의 이야기, 로컬과 글로벌 간의 대화 등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함.



형태와 색깔이 계속 바뀌는 상파울루 비엔날레의 공식 로고
(출처 : 비엔날레 홈페이지)

- 브라질 출신 기업가 Ciccillo Matarazzo에 의해 1957년부터 시작된 상파울루 비엔날레는 베니스 비엔날레, 뉴욕 휘트니 비엔날레와 함께 세계 3대 비엔날레로 평가됨.
- 1962년에 설립된 민간 비영리 기구인 상파울루비엔날레재단(Fundação Bienal de São Paulo)이 행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함.
- 비엔날레를 위해 건축된 Ciccillo Matarazzo Pavilion도 오스카르 네이미에르가 설계한 것임. 문화유산으로서 보호되는 이 건물은 3층 건물로서 40,000제곱미터를 커버하며 250미터 길이로 넓게 퍼진 독특한 구조의 건축물임.
- 도슨트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Ciccillo Matarazzo Pavilion은 독특한 기둥구조로 실내가 전부 넓게 트인 구조였으나, 이번 전시를 위해서는 일부러 중앙 홀에 가벽을 설치하는 작업을 처음으로 시도했다고 함. 이는 공간을 직접 건너가야만 작품을 대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었음.



올해 비엔날레를 위해 중앙 홀에 가벽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 디자인 설계안 (출처 : 비엔날레 홈페이지)



Matarazzo Pavilion 내부 모습 (출처 : 필자)

- 우리는 인간과 비인간, 심지어 가상과 현실이 뒤섞이는 온갖 혼종의 시대에 살면서, 서로 낯설고 이질적인 것들이 만드는 새로운 움직임을 기대함.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멀리서 “본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것이었다고 함.
- 멀리 떨어져 인터넷으로 홍수처럼 넘치는 정보를 보는 것만으로 “불가능한 안무”를 일으키기란 어려운 것임. 공기를 뚫고 나의 경계를 넘어와 다양한 존재 앞에 서서 “당신을 봅니다(I see you)”며 그를 직면하는 소통을 통해서만 “불가능한 안무”가 만드는 예술이 가능해짐.



서로 연결된 생물과 무생물, 식물과 곰팡이들 간의 소통과 불가능한 안무를 보여주는 상파울루 비엔날레 전시 작품중 하나
(출처 : 필자)

(4) 정육점에서 춤을

□ 사회구조적 차별에 저항한 문화 무기, 힙합

- 이번 서밋 행사 모든 곳에서는 DJing으로 힙합 음악이 제공되었음. 브라질 힙합(Brazilian hip hop)은 미국의 힙합문화 태생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평가됨. 주최측은 그래피티와 함께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담은 브라질 흑인문화의 대표적인 모습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음.
- 2023년 8월에 브라질 문화부는 50주년을 맞는 힙합문화를 부흥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힙합박물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힙합문화운동협회(National Construction of Hip Hop Culture movement)과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음(브라질 문화부 홈페이지, 2023.5.17.)¹¹⁾
- 저스틴 사이먼스 WCCF 의장과 Viktoriia Mukha 키이우 시의회 문화관광통신위원장의 대담으로 진행된 <Day 2 Plenary Sessions : Culture in Conflict (분쟁현장에서의 문화)>과, 인권단체 Race Forward의 대표인 Glenn Harris가 참여한 <Day 2 Panel Sessions : Power sharing> 중 <패널 2) Race and representation: Our cities are diverse, how can our governance catch up?>에서는 포탄이 오가는 전쟁 또는 정치적 분쟁의 현장에서 무기로 쓰이는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졌음. (세션 스케치는 다음 호에서 다룸)
- 힙합문화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흑인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미국에서는 사회구조적 차별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무기”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음.

11) 50 years of Hip Hop: Decree on the cultural movement is under debate at MinC (브라질 문화부 홈페이지, 2023.5.17.)

□ **Tendal del Lapa (텐달 델 라파)** <https://www.facebook.com/cctendaldalapa/>

- 서밋 1일차(2023.10.25.(수)) 저녁 투어 장소로 방문한 Tendal del Lapa는 Lapa 지역에 있는 복합문화시설로서 공연, 댄스, 스포츠, 그래피티 전시 장소로 사용됨.
- 1940년대에 정육시장이었던 거대한 구조물, 철도 옆의 야외 공간이 비보잉과 디제잉, 그래피티가 어우러진 힙합문화에 적절한 아우라를 제공함.
- 1980년대에 “Grupo de Teatro”라는 극단이 “점거(occupy)” 했었다가, 1992년 상파울루 시에서 관리하는 공식 문화공간이 되었음.



Tendal del Lapa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는 비보이 공연 (출처 : 필자)



Tendal del Lapa에서 비보잉과 함께 진행된 디제잉 파티 (출처 : 필자)



Tendal del Lapa의 한정된 벽면에 액자를 활용해 초청 전시된 그래피티 (출처 : 필자)



정육시장이었다가 그래피티 전시, 비보잉 공연 등의 장소로 사용되는 Tendal del Lapa (출처 : 상파울루시청)

- 정육시장으로 사용되었던 독특한 구조물의 넓은 벽면은 그래피티로 채워져 있는데, 키스 헤링의 작품도 보존되어 있음.
- 거리의 불법적인 그래피티와 달리 이곳의 그래피티는 합법적인 것이며, 아티스트들은 서로를 존중하여 상대의 작품 위에 덧칠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도슨트의 설명이 있었음.¹²⁾
- 공식 문화시설의 한정된 벽면에 다양한 작품을 초청 전시하기 위해 벽면 대신 액자를 이용하는 모습에서는 문화정책이라는 “제도화”를 통해 어쩔 수 없이 길거리 문화로서의 본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음.
- 화이트 큐브 전시장이 아니라 Tendal del Lapa와 같은 공간에서 맥락을 지켜 전시되는 것이 그나마 본래의 색깔을 조금이나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지만, 낙서가 가득한 화장실이

12) 브라질의 그래피티는 원래 “Pichação”라는 말로 따로 호명되었다고 함. 브라질 그래피티 관련 내용은 [“그래피티: 브라질과 세계의 역사, 특성 및 작품” \(PATRICK GRAY, OCACFE, 2023.8.1.\)](#) 참조

전시장 같았고, 그 화장실을 옮겨 놓은 전시장은 그래피티의 박물관 같았음.

- 제도화의 수준 뿐만 아니라, 유럽과 비유럽의 지역에 따른 위계도 떠올리게 하는, 소위 "하위문화"라는 정의부터 그것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공공성"이라는 가치체계의 적절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었음.



그래피티로 채워진 Tendam del Lapa의 화장실 내부모습 (출처 : 필자)



Tendam del Lapa에 전시된 화장실 그래피티 (출처 : 필자)

□ 흐름 속의 키워드들을 새로 곱씹어 보기

- WCCF와 같은 글로벌 교류 플랫폼은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며 공진화 하게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세계 도시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비슷해지도록 하는 문제도 있음.
- 글로벌한 트렌드를 읽고 그 흐름 위에 올라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컬한 문화의 다양성이 지켜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아내는 정책과 제도의 다양성이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위에서 소통하기 위해 각자 언어의 뉘앙스를 소거한 채 "영어"라는 공용어로 번역된 문화정책 키워드들의 의미가 시대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미묘하게 달라지는 지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함.
- 다음 호에서는 이번 WCCF 상파울루 서밋 현장에서 확인되는 글로벌한 "흐름"과 그 속에서 회자되는 "키워드"들의 의미를 곱씹어 볼 예정임

세계도시들의 문화정책... 흐름과 키워드(2/2) 내용 (2023.12.05. 발간 예정)	
3. 세계도시 문화정책의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WCCF 세션 주제들에서 확인되는 문화정책 어젠다들 (2) 현장 스케치 - 종합 세션 "분쟁현장에서의 문화" (Culture in Conflict) (3) 현장 스케치 - 챌린지 세션 "예술, 건강, 웰빙" (Arts, health, and wellbeing)
4. 새로 곱씹어봐야 할 키워드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체성(identity) ... 무기가 되는 (2) 다양성(diversity) ... 다난하기도 한 (3) 수익(profit) ... 탈화폐화(De-Monetized) 되는 (4) 인공적인(artificial) ... 또는 인간적인(human)

본문에 인용된 이미지와 그래프의 출처는 언급된 각 보고서들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서울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문의
 : 미래전략팀

SFAC Issue paper _ Culture + Policy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023-11

『이슈 _ 2023.11월』 발행일 : 2023.11.15

“세계도시들의 문화정책... 흐름과 키워드” (1/2)

발행인 : 이창기

발행처 :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

기획 :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작성 : 김해보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sea@sfac.or.kr)

편집 :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디자인 :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는
[이슈], [동향], [현장] 소식으로 격주 수요일 서울문화재단 블로그에 연재됩니다.
https://blog.naver.com/_sfac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뉴스 스크랩]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하시면
사회문화트렌드, 문화기술 관련 기사 등 더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https://t.me/+J08NKL97t2Q3ZDdl>